



김윤진은

강렬했다

토요극 '미스 마: 복수의 여신' 시청률 7.4%로 종영

막장의 경제 '신과의 약속' 단숨에 시청률 10.1%

19년 만에 국내 드라마로 돌아온 김윤진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완벽했다. 시청률조사회사 TNMS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부터 4회 연속 방송한 SBS TV 토요극 '미스 마: 복수의 여신' (이하 '미스 마·사진')은 시청률이 29~30회 5.4%~6.2%, 31~최종회 6.9%~7.4%로 집계됐다. 또 다른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는 전날 KTA현국사 화재 영향으로 이날 시청률 데이터를 내놓지 못했다.

'미스 마' 마지막 회에서는 미스 마(김윤진 분)가 딸을 잃은 데 대한 복수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미스 마'는 '원톱' 김윤진이 처음 열고 끝을 담았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만큼 김윤진의 드라마였다.

에게서 크리스티 소설 '미스 마플'을 각색한 이 드라마는 사건 위주로 흘러가는 원작에 충실했기 때문에 시청자의 중간 유입이 어려운 편이었다. '살인을 예고합니다'나 '사제의 사체' 등 모든 에피소드가 지난 방송을 놓치면 이야기 흐름에 끼어들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윤진의 절절한 연기가 지난 부

분을 조금 놓쳤더라도 한 번 보면 채널을 고정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했다. 특히 꿈에 그 아이를 보고 우는 장면 등에서 보여준 그의 모성에 연기는 다소 영성만 주리 요소보다도 훨씬 흡입력이 있었다.

자질한 사건들이 극을 이루지만 김윤진이 미스 마의 누명 벗기, 즉 그의 아이를 죽인 진범 찾기라는 큰 줄기를 빈틈없이 이어가면서 드라마로서의 연속성도 갖췄다.

다만 연출은 다소 아쉬웠다. 진범 찾기는 극 줄기와 개별 에피소드가 큰 연결 고리가 없어 서로 다른 스토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은 산만함을 남겼다.

이밖에 추리극의 매력인 복선도 심분 활용되지 못했으며, 공권력 등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현실성도 떨어졌다.

'미스 마' 후속으로는 이만정-주상욱 주연 '운명과 분노'를 방송한다.

전날 4회 연속 방송한 MBC TV 새 토요극 '신과의 약속'은 10.1%~11.5%, 10.3%~11.1%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작부터 10%대를 넘겼다. 전작 '숨바꼭질'이 시청률 15%대(닐슨코리아 기준)를 찍으며 종영한 후 힘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자극적인 내용 덕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회에서는 아나운서 서지영(한재영)이 김재욱(배수빈)과 불륜 스캔들에 휩싸이는 장면을 시작으로 10년 전 그가 백혈

병을 앓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소개됐다.

이 작품은 지영의 모성으로 지영과 민호(이천희), 재욱과 나경(오윤아) 부부가 각각 혼돈에 휩싸이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했지만, 연출과 캐릭터가 전형적인 주말극을 따르면서 기획 의도와 달리 초반부터 '막장극' 분위기로 흘렀다.

빠른 전개와 자극적인 대사·장면들이 시청자 눈을 사로잡으며 온라인에서 화제 물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배우의 연기력도 논란이 됐다.

'손터 게스트' 뒤를 이어 다시 한번 엑소시즘을 소재로 내세운 OCN 주말극 '프리스트'는 2.204%(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 시청률로 시작했다.

드라마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신의 힘으로 악령을 쫓는 구마와 과학의 힘으로 치료하는 의술을 넘나들며 긴박함을 연출, '손터 게스트'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이밖에 KBS 2TV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은 28.3%~33.4%, 이날 종영을 앞둔 tvN 주말극 '나인틴'은 3.603% 시청률을 기록했다. 입소문을 탄 JTBC 금토극 'SKY 캐슬'은 2회 4.402%로 집계돼 탄력을 받았다. /연합뉴스

6월 항쟁 다룬 영화 '1987'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제작사 대표 "박종철·이한열 부모님께 감사"

19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 <사진>이 올해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품에 안았다.

'1987'은 지난 23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올해 제39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공작', '리를 포레스트', '신과함께-죄와 벌', '암수살인'을 제치고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청룡영화상은 지난해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택시운전사'에 이어 2년 연속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에 최우수작품상을 수여했다.

제작사 우정필름 이우정 대표는 "이 영화를 허락해주고 응원해준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와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 고(故) 박정기(박종철 아버지) 아버지, 배은심(이한열 어머니) 여사께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싸운 민주 투사들 덕분에 큰 영광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남우주연상은 '1987'에서 악역 '박 처장' 역을 맡은 김윤석이 수상했다.

김윤석은 "작년 겨울에 농사를 잘 지어서 올해 겨울까지도 수확을 하는 것 같다"며 "후보에 오른 모든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여우주연상은 '미쓰백' 한지민에게 돌아갔다.

한지민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미쓰백이 가진 영화의 진심 덕분인 것 같다"며 "배우로서 욕심보다 우리 사회의 어둠과 아픈 현실을 영화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고 소감을 말했다.

감독상은 '공작'의 윤종빈 감독에게 돌아갔으며, 남녀조연상은 고(故) 김주혁과 김향기가 수상했다.

신인감독상은 '소공녀'를 연출한 전고운 감독이 받았고, 신인남우상과 신인여우상은 '안시상'의 남주혁과 '마녀'의 김

다미에게 돌아갔다.

◇수상 명단
 ▲ 최우수작품상 = 1987(우정필름), ▲ 남우주연상 = 김윤석(1987), ▲ 여우주연상 = 한지민(미쓰백), ▲ 감독상 = 윤종빈(공작), ▲ 남우조연상 = 고(故) 김주혁(독전), ▲ 여우조연상 = 김향기(신과함께-죄와벌), ▲ 신인남우상 = 남주혁(안시상), ▲ 신인여우상 = 김다미(마녀), ▲ 신인감독상 = 전고운(소공녀), ▲ 최다관객상 = 신과함께-죄와 벌, ▲ 단편영화상 = 허지은·이경호(신기록). /연합뉴스

이재용 아나운서, MBC 떠나 늦깎이 프리 선언

MBC 간판 아나운서 중 한 명인 이재용(52) 아나운서가 MBC를 퇴사했다.

최근 MBC에 따르면 이 아나운서는 지난달 사표를 제출해 이달 19일 수리됐다.

이 아나운서는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아나운서는 1992년 MBC에 입사

해 '찾아라 맛있는TV', '불만제로', '생방송 화제집중', '기본종은 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늘 웃는 얼굴에 친근하고 푸근한 이미지로 인지도를 높였다.

가장 최근에는 MBC표준FM(95.9MHz)에서 '그건 이렇습니다. 이재용입니다'를 진행했다.

2008년에는 MBC 연기대상 TV아나운서부문 특별상을, 2011년에는 대한민국 아나운서대상대상을 받기도 했다. 2011년에는 암으로 투병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 스킨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배드파파(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최고의 이혼(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배드파파(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포 55 KBC특별대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2018 천하장사 씨름대회 <천하장사 결정전>	1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30 아생여정(재)	00 자동차공학상 위키 2 30 TV 유지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5 MBC 플러스특선 단편 오피스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0 고향문턱 남도에 살아리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최중우돌 전국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최고의 이혼	00 배드파파	0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안녕하세요	10 핑크피쉬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특집 다큐 물의 정거장 50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세계 최고를 찾아라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아시아동물기행 -마음의 가족 캄보디아 코끼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배추김치>	17:15 마사와 곰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청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7:30 띠띠뽀 띠띠뽀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8:00 덩동덩 유치원1~2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3:40 배워서 남줄림(재)	20:40 세계테마기행 <매혹의 광야 요르단과 이스라엘 1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4:30 몬카트(재)	21:30 한국기행 <명당기행 1부 천하명당, 금환락지(金環落地)>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09:15 뽀로로 뽀로로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15 파프리카	23:55 배워서 남줄림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6:15 똑딱딱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6일(음 10월 19일 壬戌)

<p>子 36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리라. 48년생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세이다. 60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거나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72년생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연히 알게 되리라. 84년생 대안이 없다면 현상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34, 88</p>	<p>午 42년생 작은 흠결이 결정적인 패착의 원인이 된다. 54년생 인내심을 발휘 했을 때 결실을 거두게 된다. 66년생 정리정돈을 잘 해야 손해가 없을 것이다. 78년생 앞일까지 내다보고 결정하라. 90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행운의 숫자 : 64, 74</p>
<p>丑 37년생 평소에도 항상 드나드는 곳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49년생 확신을 갖고 임해도 된다. 61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역하기 힘들 것이다. 73년생 환경의 변화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 85년생 성과에 흠뻑 취해서 매우 즐거워라. 행운의 숫자 : 97, 57</p>	<p>未 43년생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도 좋을 때가 되었느니라. 55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67년생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길조가 보인다. 79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91년생 한 번 밝은 말은 주위 답을 수 없다. 행운의 숫자 : 42, 68</p>
<p>寅 38년생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인연이 있을 것이다. 50년생 이익이 따르느니라. 62년생 친근한 관계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4년생 시종일관 신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86년생 손질한다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53, 18</p>	<p>申 44년생 정성으로써 도의를 다 한다면 복 받을 것이다. 56년생 유동적 가변성을 인식해야 하리라. 68년생 상대의 조건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80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92년생 긍정적인 희소식이 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26</p>
<p>卯 39년생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라. 51년생 본디부터 없었던 것이나 같으니 집착할 필요 없다. 63년생 숲을 벌 때 걸려야 하느니라. 75년생 냉철한 판단과 객관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87년생 진행 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3, 66</p>	<p>酉 45년생 형식적인 것은 차치하고 실리위주로 바라보아야 한다. 57년생 수단의 활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69년생 상대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라. 81년생 광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93년생 방도는 옳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73, 85</p>
<p>辰 40년생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알라. 52년생 면밀히 점검한 후에 진행하라. 64년생 순조로운 추진이 계속 될 것이니라. 76년생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88년생 근본적인 원칙을 중시하고 따르자. 행운의 숫자 : 99, 27</p>	<p>戌 34년생 목표를 향해서 다가서리라. 46년생 원하고 있었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58년생 완벽하게 대비 했을 때는 피해갈 수도 있다. 70년생 무리 없이 잠재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82년생 초심을 뒤흔들만한 강력한 유혹 앞에 노출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7, 39</p>
<p>巳 41년생 서로 인연이 없다면 수고로움만 더 할 뿐이다. 53년생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 될 것이다. 65년생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가 기대 된다. 77년생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니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89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9, 30</p>	<p>亥 35년생 커다란 관점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게 되리라. 47년생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파악할 수 있으리라. 59년생 첫 번째의 것이 가장 실속 있고 유력하다. 71년생 주체성 있는 관점이 절실하다. 83년생 재료가 좋아야 결과물 또한 훌륭한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6, 77</p>